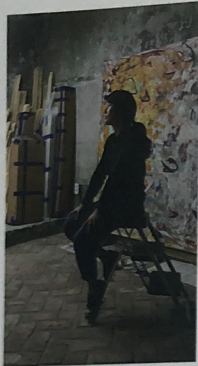


**Yunkyung Jeong 정윤경**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에서 회화·판화, 한국화 학사과정을 마친 후 영국 런던으로 이주해 2008년 솔레이드 예술학교에서 순수미술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서울을 포함해 홍콩, 런던, 브뤼셀, 모스크바, 파리 등에서 개인전과 다수의 단체전을 가졌고 아트 바젤 홍콩, 아트 자카르타, 아시안 아트 페어 등에 출품했다. 작가는 팬데믹 기간 동안 휴대폰 화면에 손가락으로 디지털 드로잉을 그리며 색다른 접근법을 시도해 '핑거 스펠(Finger Spell)' 시리즈를 탄생시켰다. 이전 작업이 기하학적이고 유기체적인 모티프를 기반으로 풍경을 구축했다면, 최근작에는 정제된 풍경과 현실이 함께 담긴다. 종이의 낯선 감각과 밝고 자유로운 선의 움직임이 그의 대형 캔버스에 깃들여 있다.



**GOP** 지오피



정윤경, 'FS-two spot', Mixed media on unprimed canvas, 150x190cm, 2022  
Courtesy of GOP

올해 키아프 서울에서 어떤 작품을 선보이나? '핑거 스펠' 시리즈를 전시한다. 영국에서 지낼 때 코로나 19로 인해 작업실에 가지 못해 집에서 휴대폰 화면에 그림을 그린 것이 '핑거 스펠' 시리즈의 시작이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보다 나아진 상황에서 시리즈를 발전시켰다. 아크릴물감과 오일 스틱 등 다양한 재료를 활용하고, 드로잉뿐 아니라 종이 콜라주도 시도하는 식으로 말이다. 우리는 휴대폰 화면 속 SNS를 살펴보면 손가락 하나로 감정을 쉽게 표현하고, 무언가를 함부로 평가하기도 하지 않나. 우울한 감정도 대담하고 밝은 선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느꼈다. 휴대폰 화면 위로 손가락을 움직이며 주문을 걸 듯이, 하루하루의 감정을 담아 선을 그려내며 작품을 완성한다.

예술가로서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엄마라는 정체성이다. 원래 늦은 시간에 작업하는 것을 즐겼고, 철학적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며 차분한 작업을 주로 했다. 그런데 결혼 후 아이가 태어나며 작업 환경이 확연히 달라졌다.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아이가 수업을 듣는 시간이 되면, 온전한 예술가로 돌아와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다. 예전처럼 깊은 생각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하지만 예술가로서 불행하다고 느끼지는 않는다. 작업할 여유가 없을 때도 상황을 최대한 즐기며 오히려 더 과감하게 작업하려 노력한다. 아이를 돌보아 해 작업을 미룰 때가 있지만, 반대로 아이로부터 좋은 영향을 받기도 한다.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고 놀란 적이 많다.

어떤 예술가로 기억되고 싶나? 내가 여성 작가라는 점에 대해 끊임없이 생각한다. '여자이고 얼마인 한 작가가 이런 삶을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혹은 그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작업과 예술 세계를 펼쳐냈다'라는 형태의 문장으로 기억되고 싶다.

올해 키아프 서울의 관람객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근 추상화를 그리는 한국 작가들이 많아졌고, 작품의 깊이와 다양성도 확장되고 있다는 걸 체감한다. 전시를 찾아온 이들이 추상 예술을 더 열린 마음으로 감상하면 좋겠다. 작품을 분석하거나, 작가의 의도를 알아내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는 않다. 그저 보이고 느끼는 대로 즐겨주기를 바란다.



정윤경, 'Finger laugh and sorrow II', Mixed media on unprimed canvas, 160x190cm, 2022  
Courtesy of GOP